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최성준 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043-870-5360), 탁계성 사무관(043-870-5364)

한국, 사물인터넷(IoT) 국제표준화 주도

- ISO/IEC JTC 1(정보기술) 산하 사물인터넷(IoT) 표준화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9차 ISO/IEC JTC 1(정보기술) 2014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표준화작업반(WG: Working Group) 설립을 주도하고 관련 의장단을 수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한국은 지난 2012년 11월 제주에서 개최된 JTC 1 총회에서 사물인터넷(IoT) 특별작업반을 설치하고 의장을 수임한 이후 2년간의 표준화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공식표준개발 작업반인 "WG on IoT (WG 10)" 설립과 의장단 수임에 성공하였다. 작업반 의장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유상근 선임연구원이 임명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 WG on IoT (WG 10): Working Group on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위한 JTC 1 직속의 10번째 WG

○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미래 생활을 바꿀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로 미래 핵심 표준화 분야의 선도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금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빅데이터 표준화 작업반(WG 9)도 신설되었다. 그 동안 한국은 빅데이터 표준화 연구반(Study Group on Big Data) 활동을 주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은 이미 관련 신규표준 2건* 제안 준비를 완료하여 총회 후 공식제안을 할 계획이다.

* 신규표준 2건: 빅데이터 용어 및 빅데이터 참조구조 표준(안)

□ 그 외에도 한국은 최근 융합 환경에서 복잡해지는 JTC 1 표준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JTC 1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관리 특별작업반(Special Working Group on Management)을 통해 시스템 통합 관점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한국의 경험과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인 구체화 과정을 거쳐 2015년 JTC 1 총회에서 승인하기로 하였다.

[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JTC 1 총회를 통하여 한국은 표준화 주변국 지위에서 국제표준화를 리드하는 **글로벌 표준화 리더국가로 진입한 성과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분야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주도로 글로벌 표준화 선도 발판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관련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